

파킨슨병과 싸우며 독립운동가를 찾아 나선 최형주 세무사의 25년 '나라 사랑'

“제대로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

고창출신 고 은규선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자신의 마지막 사명처럼 여기고 자료 수집

몸이 아픈 와중에도 독립 유공자 발굴에 나선 한 세무사의 선행이 화제다. 회계의 주인공인 최형주 세무사는 1955년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서 태어났다.

최형주 세무사는 세무사이기 이전에 잊힌 독립운동가를 찾아 역사 속에 되살리는 민간 자원봉사 연구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전라고등학교와 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 세무공무원으로 세무사에서 공식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01년 세무직에서 명예퇴직 후 2002년 1월부터 전주에서 세무사로 활동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써왔다.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전주에서 경기 용인으로 사무실을 옮겨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18년째 파킨슨병과 싸우면서도 독립 유공자 발굴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최 세무사는 자신의 시간을 들여 일제강점기 신문과 각종 사료를 뒤지며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찾아내는 일을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 아카이브와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매일신보 등 신문자료, 당시 재판기록과 사진 등을 하나하나 추적하며 국가보훈부에 제출할 증거를 직접 수집해 왔다.

그의 노력은 이미 결실을 맺었다. 최근 고창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인 고 은숙정 여사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자료를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제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 세무사는 “고 은숙정 선생님이 독립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신문자료와 각종 기록을 찾아내며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그가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인물은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고 은규선 선생이다.

고 은규선 선생은 고창향년회와 조선농민사 대표 등을 맡아 항일운동을 펼쳤으며, 김승옥 선생, 신기혁 선생 등과 함께 ‘3인 혈서봉행’을 결성해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세무사는 동아일보 기사와 당시 형무소 수감 사진, 경찰 조사기록 등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최근에도 일제 경찰이 고 은규선 선생 등을 불법 연행해 조사했다는 내용의 당시 신문 기사를 새롭게 찾아냈다.

하지만 고 은규선 선생은 아직까지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 세무사는 “이미 여섯 차례나 자료를 제출했지만 결정적인 사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자료를 계속 찾아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에게 독립유공자 발굴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다. 외조부인 엄규영 선생이 독립 유공자이며, 부친 역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퇴직 6개월을 남겨놓고 일하다가 과로로 순직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라를 위한 희생

과 헌신의 가치를 배우게 됐다고 한다.

그는 지금까지 외조부 엄규영 선생의 독립 유공자 지정 과정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유공자 선정에 기여했으며, 고 은숙정 여사의 독립유공자 인정에도 힘을 보탰다.

현재는 고 은규선 선생의 독립 유공자 서훈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처럼 여기고 자료 수집에 열중이다.

최 세무사는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제대로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세무사로서는 2022년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전국 소수에게만 수여되는 아름다운 납세자 30인'으로 선정됐으며,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 세무사는 2011년 전주 지역 세무사회 회장, 2013년 전주세무사납세자권익준중위원장, 2023-2025년 전북지회 도세무사회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18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병마와의 싸움 속에서도 역사 속에 묻힌 독립운동가를 찾아내기 위해 신문 한 장, 사진 한 장을 뒤지는 그의 노력은 개인의 봉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와 애국정신을 되새기게 한다.

최 세무사는 “독립운동가들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이었다”며 “그분들의 삶을 올바르게 기록하는 일이 후손들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조용한 헌신은 오늘도 이름 없이 사라질 뻔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역사 속으로 다시 불러내고 있다.

/오상근 기자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군산시에 보양식 기탁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어려운 이웃의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9일 보양식 식품구려미 3,000만 원 상당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이번 꾸러미는 무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위해 마련됐다. 레토르트 삼계탕, 갈비탕 등 보양식 4종과 찹쌀 미숫가루, 파래김 콜로니 등 총 8개 품목으로 구성됐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한편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군산=김만호기자



김성수 도의회 문안위원장, 호우 대응태세 점검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9일 고창소방서를 방문해 여름철 집중 호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재난 현장 대응에 힘쓰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도로 장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고창소방서로부터 호우 대응 현황과 관내 기상 상황, 소방력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침수지역 구조·구급 활동과 배수 지원 등 각종 재난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전하며, 집중호우 기간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활동 시 대원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여경협 전북지회, 전주연탄은행서 배식 봉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소정미)는 지난 8일 전주연탄은행 행복센터에서 나눔동리회 회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들은 식사 준비를 비롯해 배식과 설거지, 마무리 정리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전주연탄은행을 찾은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다. 또한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힘을 보태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여성경제인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한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오상근 기자

삼정엘리베이터 대표,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시장 양중모)에 따르면 최강진(주)삼정엘리베이터 대표가 지난 8일 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누적기부액 1,000만 원을 달성했다.

최강진 대표는 지난 2024년에 500만 원을 기부한 것에 이어 올해도 500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흔쾌히 남원시에 기탁하며, 남원시청 로비에 조성된 '남원 사랑의 전당' 1,000만 원 이상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양지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혹서기 안전교육

전주시 양지노인복지관(관장 최상욱)은 9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240명을 대상으로 혹서기 안전 교육·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낙상사고 예방 및 대처 △주방·작업환경 안전 수칙 △출퇴근 교통안전과 폭염 예방 △식중독 예방 관리 등 활동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혹서기 안전사고와 건강관리 사례,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됐다. 또 폭염과 식중독 등 여름철 건강 위험에 대한 대처 요령을 안내해 참여자들의 안전의식과 건강관리 역량을 높였다.

한 교육 참여자는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며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상욱 양지노인복지관 관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



신들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현장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주시와 함께 안전한 노인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지훈 전주지장은 “무더운 날씨에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항상 건강을 챙기며 안전하게 활동하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오만호 기자

침수 피해 예방 나섰다... 월명동, ‘쓰담쓰담, 월명동’ 캠페인

군산시 월명동(동장 상귀정)은 9일 통장협의회, 주민자치 위원 및 주민 등 약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근대역사 관광지역에서 호우주의보에 따른 빗물받이 점검 및 환경정비 활동인 ‘쓰담 쓰담, 월명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당초 관광 성수기를 맞아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쓰담쓰담, 월명동’ 환경정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받이 점검 및 배수로 환경정비로 변경해 추진했다.

이날 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주요 도로와 상수 우러지역의 빗물받이에 쌓인 담배꽂이와 낙엽, 생활쓰레기 등 각종 퇴적물을 수거하고 배수 상태를 점검하며 원활한 빗물 배수를 확보하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힘썼다.

상귀정 월명동장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지역 안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과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월명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쓰담쓰담, 월명동’ 캠페인은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자’라는 슬로건 아래 불법투기 쓰레기 근절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화 활동으로, 올해에는 계절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정화 활동과 각종 문화행사 연계해 쾌적한 관광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농협, 전북여성대회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전북농협이 전북여성대회 현장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농촌 발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전북농협은 9일 진안군에서 열린 전북여성대회에서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농협은 참가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 담배품 혜택 등을 담은 홍보자료를 배부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또 리플릿과 음료를 함께 제공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제도라는 점을 알리고,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농심천심운동’의 가치도 함께 전파했다.

/오상근 기자



전은 지역사회봉사단, 부안 사회적기업에 성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부안 지역 사회적기업에 지역사랑성금을 전달하며 나눔 실천에 나섰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박춘원 은행장·정원호 노동조합 위원장)은 부안의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바다의향기’에 지역사랑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바다의향기는 장애인 32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김과 김자반, 김부각 등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제품 포장공정에 사용하던 날인기 2대 가운데 1대가 고장 나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노후 장비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게 됐다.

새로운 날인기 도입으로 제품 포장공정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 공정의 연속성을 확보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바다의향기 조상원 원장과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노동조합 간부, 전북은행 배오석 부안 지점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장애인 근로자 지원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오상근 기자

장수소방서, 고령층 은열질환 주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장맛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은열 질환에 취약한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장수군은 지역 특성상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농업 종사자가 많아, 여름철 비닐하우스나 밭에서 야외 작업을 하다 은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방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여름철 은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대 핵심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하루 중 가장 덥고 취약한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무리한 야외 동작과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만약 야외 활동 중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을 느낀다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본사내방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